

항만 인력공급체제 개혁 유공자 오찬

■ 노 대통령 인사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항만노동조합 대표님들, 항만 하역하시는 분들, 일반 무역 업무를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항만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십년 미루어져왔던 아주 큰 숙제 하나가 풀렸습니다. 그 숙제가 풀리는 시점이 참여정부 시기라서 대단히 보람을 느끼고 가슴 뿌듯합니다. 큰 숙제를 풀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항만개혁, 수십년 미뤄왔던 큰 숙제 풀 것

항만이 마비되면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는 수출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이 마비되면 그야말로 모든 경제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만이 비효율적이면 전체 경제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였는데 이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변화는 두려운 것입니다. 남의 변화를 얘기할 때 쉽고, 나와 관

계된 변화라도 총론적인 변화와 개혁을 말할 때는 쉬운데, 막상 구체적으로 개혁조치를 하려고 하면 불안합니다. 분명히 모든 개혁에는 이익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개혁은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합리적인 조직을 통해 약간씩 손해 보고 약간씩 이익 되게 해서 이익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개혁이라고 한다면 총량에서 이익이 생겨야 개혁이지 총량에서 손해나면 개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총론적으로 개혁에 찬성하지만 실제로는 조정과정이 제대로 될 것인지 확실한 보장도 없고, 제도적 조정이 현실의 적용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날지, 합의사항이 그대로 이행될 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측을 잘하려고 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화에는 손실에 대한 불안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넘어서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불안 극복한 신뢰와 선의는 새로운 생산력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이 항만노무체계를 개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안 될 때에는 대개 정부가 부담을 책임지고 뭔가 강행해 나가지만, 항만노무체계는 실제로 우리 경제를 정지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합부로 정부가 나서서 이해관계 조정을 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도 숙제였지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불안의 고개를 넘겨 주셨습니다.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고개를 감수한 것입니다.

용역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제도화와 관련한 합의와 판단이 사실과 다를 때는 우리사회가 새로운 조정을 할 만한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개혁의 이행과정에서 규정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선의와 성의를 다할 때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단해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신뢰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선의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도 큰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잘 발휘돼 가면 여러분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배반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예측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 있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무릅쓰고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만개혁은 물류선진화 전략 실현의 중요 계기

국가발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푼 이 숙제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주 크나큰 열쇠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장의 문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융 선진화, 물류 선진화에 관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리적인 이점을 무시하더라도 물류가 우리 사회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요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속에서 성공하는 경제로 가고 마침내 선진국 경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물류 선진화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풀어주신 이 숙제를 풀지 않으면 물류 선진화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동북아 물류허브라는 것도 지도를 들여다보면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 비효율적인 장애요소 때문에 결국 성공할 수 없는 허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류 선진화, 또는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이라고 하는 국가적 전략,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전략을 성공시켜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묵은 숙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자신감

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결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양측의 이익이 균형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풀기를 거절했던 사람들과, 풀기를 간절히 요구했던 사람들이 함께 이후 이행과제도 국가전략을 추진해 간다는 자세로 성의를 가지고 서로 잘 협력해주시면 반드시 큰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 협력의 과정도 중요...멀리보고 가야

하역업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비용을 절감하고 싶으실 것이고, 화주들도 빨리 운임이 낮아지시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약속한 것은 5년 뒤, 10년 뒤에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멀리 내다보고 함께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노동계에서 당장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의 안정된 직업으로서 전망 있는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크게 내다보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임기 마치기 전에 혹시 제도화해야 할 계획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그 전이라도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정부가 감당해 나갈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력하고 대화하는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 감사드립니다.

■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앞으로 정부는 항운노조 상용화(常傭化)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

심을 가지고 지원·협력할 것입니다. 상용화를 통해 항만 효율성이 향상되면,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항만에서의 물동량도 증가하게 되어 결국 수출도 증가하고 항운노조 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용화 이후에도 항운노조 조합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소수의 최고 인력도 필요하지만, 직업능력이 떨어지거나 기술의 변화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들에게 직업전환의 기술을 꾸준히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몸집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역량은, 적절한 시련과 도전이 있으면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한미 FTA도 그렇고, 항만 인력공급체제의 개혁도 그렇습니다. 후일 우리가 성공한다면, ‘그때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라고 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만 인력공급체제의 개혁은 애국적 결단입니다. 관계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